

2023. 11. 23.(목) 13:00

농어촌공사, 에티오피아에 K-농공기술 선보여

- 에티오피아 관개동지부 장·차관 비롯한 공무원 초청 연수(11.15~11.23) 성료
- 제주 지하수 개발 현장 견학을 비롯한 경영시간담화로 협력 방안 확대 모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에티오피아 관개농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 7명을 초청하여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 컨설팅 사업」* 연수를 진행했다.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컨설팅사업(사업기간: '21.7~'22.6)은 지하수 관개개발사업 및 농업기술센터·농산물 가공시설 등 구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사가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지하수 개발·관리를 기반으로 한 공사의 제주도 수자원관리 현장 및 재난안전상황실, 농업용수 자동화 시설 등의 현장 교육으로 공사의 농공기술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23일 오늘 박태선 농어촌공사 기반조성이사 등이 참석한 경영진 간담회에서 에티오피아 관개농지부 비르하누(Birhanu) 차관은 연수 기간 동안 우수한 농공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과 사업 확대 희망의 뜻을 전하였다.

최병윤 인재개발원장은 “공사의 선진 농공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위급 연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서 “공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개도국에 전파하고, 공사의 해외사업 확정
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에티오피아 낙농

업 연수('23-25년), 에티오피아 농산업단지 연수('23-25년)를 수주하여 1차년도 연수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5월) 및 네팔 수자원관계청장(6월) 등 장차관급 연수 3개를 포함하여 올해 18개 과정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당 부서	인재개발원	책임자	부 장 최호진 (031-420-0761)
	국제 교류센터	담당자	차 장 이성희 (031-420-0763)